

AI 활용 가이드라인

1. 총칙

1.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문적 진실성과 윤리적·책임 있는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아울러 AI 활용이 대학 교육의 공공성, 형평성, 사회적 책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이 효율성과 생산성의 논리를 넘어 인간의 사고, 성찰, 그리고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지향으로 삼는다.

1.2. AI의 정의 및 범위

- 본 가이드라인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 기술 분야를 의미한다.
- AI는 크게 분석형 AI(Analytical AI)와 생성형 AI(Generative AI)로 구분되며, 본 가이드라인은 텍스트·이미지·코드 생성 등 교수·학습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생성형 AI를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단, 분석형 AI를 포함한 모든 AI 도구의 교육적 활용에도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 본 가이드라인은 수업 설계와 운영, 학습, 과제 수행, 평가에 이르는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1.3. 교육적 의의와 한계

- AI는 학습자의 수준과 맥락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수자의 수업 설계와 자료 개발을 보조하는 등 교육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 그러나 AI는 학습 방식, 평가 체계, 교육 관계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서, 그 활용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숙고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는 부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학문적 진실성 훼손, 사고의 외주화, 비판적 사고 약화, 편향된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 등 교육적·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AI는 학습자의 사고와 성찰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교육적 조력자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2 기본 원칙

2.1. 인간 주도성

- AI는 교육과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이며, 사고와 판단의 주체는 언제나 인간이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고 과정과 판단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AI는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이하 모든 원칙의 전제이다.

2.2. 학문적 진실성

- AI는 교육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하며, 결과물은 사용자의 고유한 사고와 표현을 반영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제출하거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학문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3. 책임성

- AI가 생성한 정보는 오류 및 편향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 후 활용해야 한다.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AI 활용 여부의 결정부터 결과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4. 투명성

- AI를 활용한 경우, 어떤 도구를 어떤 목적과 범위에서 활용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용하고 출처를 표기함으로써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2.5. 공정성

- AI 접근성이나 활용 능력의 차이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필요와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AI 알고리즘에 내재된 편향이 교육적 판단에 무비판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6. 정보 보호 및 보안

- AI 도구 활용 시 개인정보와 민감한 데이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유출이나 오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 도구의 정보 처리 방식과 보안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3. 교수자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AI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하고, 학습자를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는 단순히 AI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넘어, AI 활용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학문적 진실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책임 있는 AI 활용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1. AI 활용 방침의 결정 및 명시

- 교수자는 수업 목적, 교수 방법, 과제 및 시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활용 방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강의계획안에 이를 명시하여 학습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안내한다.
- AI 활용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 이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과제와 평가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필수 기록 사항(도구, 활용 범위, 검토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수업 첫 시간에 AI 활용 방침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며, AI 활용 기준 위반 시 학문적 진실성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팀티칭이나 조교가 참여하는 수업의 경우, 모든 학습자에게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수자 간 협력과 사전 공유를 강화한다.

3.2. 과제 및 평가 재설계

- 과제와 평가는 단순 정보 요약이나 재진술을 넘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학습자의 실제 경험, 관찰, 맥락을 반영하는 과제를 통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한 사고와 표현이 드러나도록 하고, AI 활용 시에도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와 논리를 중심으로 결과물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 초안-피드백-최종본 제출로 이어지는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AI 활용 과정을 성찰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도록 한다.
- 평가 기준에 AI 활용 여부 명시, 비판적 검토 과정, 본인의 사고 반영도 등을 포함하되, 학습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3.3. 학습자의 AI 활용 지원

- 학습자가 AI의 기능과 한계를 이해하고, 학문적 진실성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공 분야별 AI 활용 사례, AI의 작동 원리, 주요 한계, 윤리적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수업 중 AI 생성 결과물을 함께 검토·분석하며 정확성, 편향 가능성, 활용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한다.
- 과제 제출 시 AI 활용 과정과 검증 과정에 대한 성찰 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학습자 간의 AI 활용 경험과 숙련도 차이를 고려하여 과제를 설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4. AI 탐지 도구 활용

- AI 탐지 도구나 표절 방지 프로그램은 오탐지 가능성과 판별의 한계가 있으므로, 단독 판단의 근거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 탐지 도구의 사용 목적, 적용 범위, 한계를 학습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지 않는다.
- 부정행위 여부는 초안 작성 과정 기록, 구두 설명 능력, 사고 전개 of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교수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학습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한다.

3.5.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 AI 도구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학적 정보 노출,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개인정보, 학적 정보, 평가 문항 등 민감하거나 비공개로 분류되는 자료는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으며, 외부 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저장·재활용 가능성에 특히 주의한다.
- 수업 초기에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3.6. 교수자의 AI 역량 함양

- AI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교수자는 AI의 기능·한계·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함양하여야 한다.
- 새로운 AI 도구를 수업에 도입하기 전에는 교육적 효과와 윤리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 여부를 결정하며, 관련 연수 참여와 동료 교수자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이러한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
- AI 역량 함양은 도구 사용법의 습득을 넘어, 교육적 맥락에서 AI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4. 학습자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학습자가 AI를 수업과 학습 과정에 적절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AI를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가 아닌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보조 도구로 인식하고, 학문적 진실성과 책임 있는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4.1. 교과목별 AI 활용 방침 확인 및 준수

- AI 도구의 활용 가능 여부와 범위는 교과목의 성격과 수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강 전 해당 교과목의 AI 활용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활용한다.
- AI 활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전에 교수자에게 확인한다.
- 방침 위반 시 학문적 진실성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4.2. 학습자 주도성과 비판적 활용

- AI는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이며, 사고와 판단의 주체는 학습자 본인이다.
-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정확성, 편향성, 한계를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한다.
- 특히 사실, 통계, 참고문헌은 신뢰할 수 있는 원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4.3. 학문적 진실성 준수

- AI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과제나 결과물은 자신의 사고와 언어로 정직하게 작성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다.
-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속여 제출하는 행위, 타인의 AI 활용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학문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시험 응시 및 과제나 기타 학습과 관련된 자료 작성 시 교수자가 사전에 허용한 범위에서만 AI를 사용하며, 허용되지 않은 AI 도구의 사용은 학문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4.4. 투명성과 출처 표기

-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AI 도구명, 활용 시점, 활용 범위를 명시하고, 자신의 작성 내용과 AI의 기여 내용을 명확히 구분한다.
- AI가 생성한 내용을 활용할 때는 정해진 인용 방식에 따라 출처를 표기한다.

4.5.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 AI 도구에 민감 정보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 수칙을 준수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와 비공개 학습자료·평가 문항은 외부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으며, AI에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둔다.

4.6. AI 활용 역량 개발

- AI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는 AI의 기능·한계·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수업 안팎에서 제공되는 AI 관련 교육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AI 도구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며 자신의 학습 맥락에 적합한 활용 방식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간다.
- AI 역량 개발은 도구의 사용법 습득을 넘어, 학문적 목적에 맞게 AI를 선택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향후 AI 관련 정책 및 도구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